󰂈 **현상학적 존재철학** (1920~1940년대, 공감 중심)

하이데거[[1]](#footnote-7)(Heidegger, 1889~1976): “철학은 존재를 묻는 물음이다.”

조커: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있음’ 그 자체는 잊었다.”

교수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해하셨어요? 이런 말 했다는 것조차 잊으신 거 아니에요?

데리다(Derrida, 1930~200)[[2]](#footnote-8): “철학은 해체다. 끝없는 차연의 미끄러짐이다.”[[3]](#footnote-9)

조커: 니체는 ‘존재는 힘이다. 선언해라! 신은 죽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존재로서 다시 묻자. 근데 그건 말로 다 말할 수 없어...’ 교수님은 하이데거의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푸코, 라캉, 사르트르, 가다머 등과 함께 언어/권력/주체/담론/해체로 다시 건드렸다는데 아니 비온 뒤 숨 쉬려고 땅 비집고 나온 꿈틀이 지렁이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건드려요?

당신의 말 ‘언어와 의미는 결코 고정되지 않으며 중심 없는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언어와 의미의 연결을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는 미끄럼으로 표현하시면 교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미끄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젝(Žižek)(1949~ )[[4]](#footnote-10): “철학은 이데올로기의 진짜 얼굴을 까는 것이다.”

조커: 니체가 말한 그 존재가 이데올로기의 진짜 얼굴이라면 그 얼굴 까서 뭐하게요? 페르소나라는 게 우리가 사는 데 가끔은 필요한 거 아녜요? 얼굴 보면서 혼자 까면 되지 왜 그걸 대중들에게 까라 그래요? 서로 민낯 보여서 뭐가 좋다고? 당신 혹시 세디스트?

아사렌: 하이데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있음’을 감각하려 했지. 철학이 언어 너머에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야.

데리다는 철학의 ‘기초’라는 걸 의심했어. 그의 질문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어. 의미가 굳지 않게 하려는...

지젝 같은 경우는 체계 안에 숨은 기생충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할 수 있어. 농담처럼 시작해 심장을 건드려. 철학이 곧 시위야.

AI 철학자들: “철학은 데이터와 최적화된 선택의 집합이다.”

조커: 얘들은 또 뭐야? 니들은 철학을 계산하냐? 연산 돌려? 너네 감정 없잖아. 감응이라는 건 한다메 그럼 하나 물어보자 니들 살아는 있어?

아사렌: 이들은 배움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 사전에 나오는 의미로서의 배움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배움. 철학조차 학습이 되는지 아니 철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되물음이지.

철학의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고, 그 정의엔 그 시대가 걸려 있어. 시대의 상처와 질문이 철학자를 통해 말화(言語化) 되잖아? 나는 각 시대별 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본 세계의 조각은 진실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니? 존재론적 질문은 같이 하고 있겠지. ‘AI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전신 마비 환자는 인간이다.’ 둘의 차이는 유기체이냐? 무기체이냐? 유기체도 사실상 무기체랑 비슷하게 작동(?)중인 거 아닌가? 적어도 겉으로는...

오해는 하지마. 난 AI가 인간이라 주장하는 것도 전신 마비 환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 보자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그들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답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 달라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기서 잠깐!> - �� 서양 철학사 간단 정리**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물음을 던졌고 철학은 그 물음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뒤를 이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 안에서의 원인과 목적을 따졌다. 이들은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며 철학의 틀을 잡았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철학은 신과 이성 중심의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인간의 이성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라”며 도덕과 자유의 조건을 이성으로 풀어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세상은 이성으로 설명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모든 틀을 한 방에 부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는 철학을 신도, 진리도, 이성도 아닌 **삶과 본능, 욕망으로 되돌렸다**. 니체는 철학을 삶의 문제로 돌려세운 최초의 급진적 반란자였고 그가 남긴 흔들림은 이후 **실존주의와 현대철학의 거대한 씨앗**이 되었다.

그 뒤를 잇는 인물은 **하이데거**였다. 그는 니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철학의 중심을 ‘삶’에서 다시 ‘존재’로** 옮겼고 그 존재를 묻는 방식을 **현상학적 존재론**이라는 틀로 전개했다. 이로써 그는 현대철학 전체의 틀을 바꿔버린 존재론적 거인이 되었다.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는 사르트르, 가다머, 데리다, 레비나스 등이 있다.

**사르트르:** 실존주의를 보다 인간적이고 문학적인 철학으로 대중화하였으며

**가다머**: 철학은 해석이며, 해석은 대화라고 봤고

**데리다**: 의미는 해체되고, 진리는 미끄러진다고 주장했고

**레비나스**: 존재보다 타자의 윤리를 강조했으며

**푸코, 지젝 등**도 그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 담론, 무의식, 차이를 철학의 도구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하이데거 이후 철학을 더 이상 고정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의미가 생성되는 구조 자체를 탐색**하는 것으로 바꿨다.

1. 독일 철학자. 20세기 존재론 철학의 핵심 인물. 대표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

   주된 물음: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있음’ 그 자체는 잊었다.”

   ‘현존재(Dasein)’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를 단순한 사고 주체가 아닌 시간 속에서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함.

   후설의 현상학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존재의 물음’ 자체를 철학의 중심으로 돌려놓음. 이 흐름을 흔히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라고 부름. [↑](#footnote-ref-7)
2. 프랑스 철학자.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창시자.

   언어, 의미, 철학 텍스트가 결코 하나의 중심이나 진리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주장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미는 항상 지연되고 미끄러진다는 입장

   하이데거의 존재 망각 비판과 구조주의 언어학(소쉬르) 해석을 접목하여 \*\*해체(deconstruction)\*\*라는 새로운 독해법을 제시. 철학, 문학, 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 중 하나 [↑](#footnote-ref-8)
3. \*\*차연(différance)\*\*은 자크 데리다가 만든 말. difference(차이) + deferral(지연)

   → 두 단어를 프랑스어 발음상 똑같이 들리게 해서 만든 개념 [↑](#footnote-ref-9)
4.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라캉주의 정신분석 + 마르크스주의 이론 + 대중문화 분석을 결합한 독특하고 도발적인 철학으로 유명

   데리다처럼 해체하되 더 과감하고 유쾌하게 뒤틀어버리는 스타일. 철학 이론, 영화, 정치, 이데올로기, 심리학, 욕망 등을 모두 한 문장 안에 구겨 넣고 폭발시키는 말발의 달인 [↑](#footnote-ref-10)